

마이스터고 성과분석: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비교

- 취업률 및 고용안정성 지표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과가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남.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50%로 특성화고 졸업자에 비해 약 11%p 높고, 월평균 임금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232.1만 원인 반면, 특성화고 졸업자는 약 185.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.
- 구체적으로 마이스터고에서 경험한 직업교육 및 학습활동은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.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중등교육 경험은 취업률, 임금, 복지후생 등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의 객관적 이행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영향으로서 취업 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면,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.
-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 성과 중 하나인 전공일치도는 지속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과 직장에서의 직무일치에 대한 만족이 지속됨을 알 수 있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주

'유진영 외(2021), 『2021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사업 2) 마이스터고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지원』,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, 재정리함.

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된 지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마이스터고 정책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.

-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정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이 필요함.
 - 마이스터고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과 함께 고교 졸업 후 경제활동과 대학 진학 및 대학생활,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까지를 중장기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.
- 2013년에 시작한 마이스터고 추적조사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교 교육요인과 정책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. 이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(이하 KEEP II)와 통합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비교분석하고자 함.

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「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(KEEP)II」 1차, 3차, 4차년도 자료

- 분석 대상: KEEP II에 참여한 마이스터고, 특성화고 학생 중 경향점수를 매칭한 후 마이스터고 543명, 특성화고 359명의 응답을 분석함.
- 분석 방법: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비슷한 경향을 갖는 분석대상을 추출할 수 있는 경향점수매칭(propensity score matching) 분석을 실시함.
 - 경향점수매칭 방법으로 선별한 표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 성과 지표(취업상태, 일자리 형태, 근무



형태, 월평균 급여, 복지후생 등)를 활용하여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객관적 노동시장 이행 성과 차이를 분석함.

– 전공일치도, 학력일치도와 직장 관련 만족도 등을 통해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 성과로 차이를 분석함.

〈표 1〉 예측 변수

구분		변수명	변수 특성
예측 변수	고등학교특성	학교 유형	마이스터고=1, 특성화고=2
		학교 소재지	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(서울특별시=1, 제주도=17)
	개인특성	아버지 교육 수준	무학=1, 초졸=2, 중졸=3, 고졸=4, 2~3년제 대졸=5, 4~6년제 대졸=6, 대학원 졸(석사)=7, 대학원 졸(박사)=8
		어머니 교육 수준	무학=1, 초졸=2, 중졸=3, 고졸=4, 2~3년제 대졸=5, 4~6년제 대졸=6, 대학원 졸(석사)=7, 대학원 졸(박사)=8
		가구 월 소득	부모의 월평균 근로소득
		중학교 내신등급	중학교 3학년 내신등급(1~9등급)

02 노동시장 이행 성과 예측요인에 대한 경향점수매칭

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함.

-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 간의 중학교 내신등급, 학교 소재지, 부모 교육 수준, 그리고 가구 월 소득에 대한 사전 영향 통제를 위해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함.
-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마이스터고 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을 선별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성과를 분석함.
 - 학교 소재지 및 부모 교육 수준 분포와 가구 월평균 소득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남.
 - 중학교 내신등급은 마이스터고 3.92등급, 특성화고 3.47등급으로 유사한 등급으로 매칭됐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됨.

〈표 2〉 예측변수를 통제한 경향점수 매칭 결과

구분		경향점수매칭 후(n=902)				구분		경향점수매칭 후(n=902)			
		마이스터고	특성화고	평균 차이	t값			마이스터고	특성화고	평균 차이	t값
중학교 내신(등급)		3.92	3.47	0.449	6.281***	가구 월 소득(만 원)		471.5	427.8	43.739	3.096**
학교 소재지 (%)	서울·경기·인천	14.7	52.3	0.245	0.842	아버지 교육 수준 (%)	고졸 이하	52.8	52.9	-0.049	-0.629
	부산·울산	19.7	4.8				대졸	42.4	40.9		
	대구·경상	23.2	11.7				대학원 이상	4.8	6.1		
	광주·전라·제주	18.1	18.9			어머니 교육 수준 (%)	고졸 이하	60.8	60.2	-0.009	-0.134
	대전·충청	20.3	11.1				대졸	37.2	37.0		
	강원도	4.1	1.1				대학원 이상	2.0	2.8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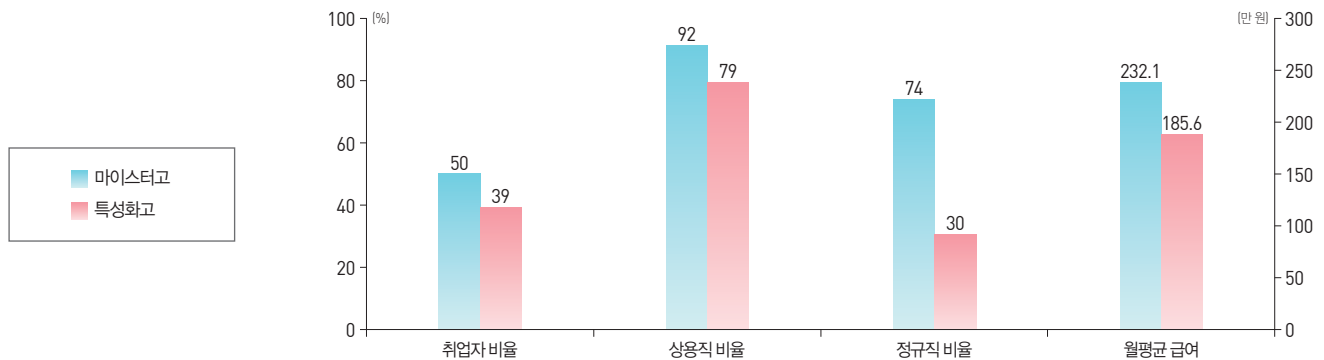
주 |
p<.01, *p<.001

03 노동시장 이행 성과 비교

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객관적인 노동시장 이행 성과는 전반적으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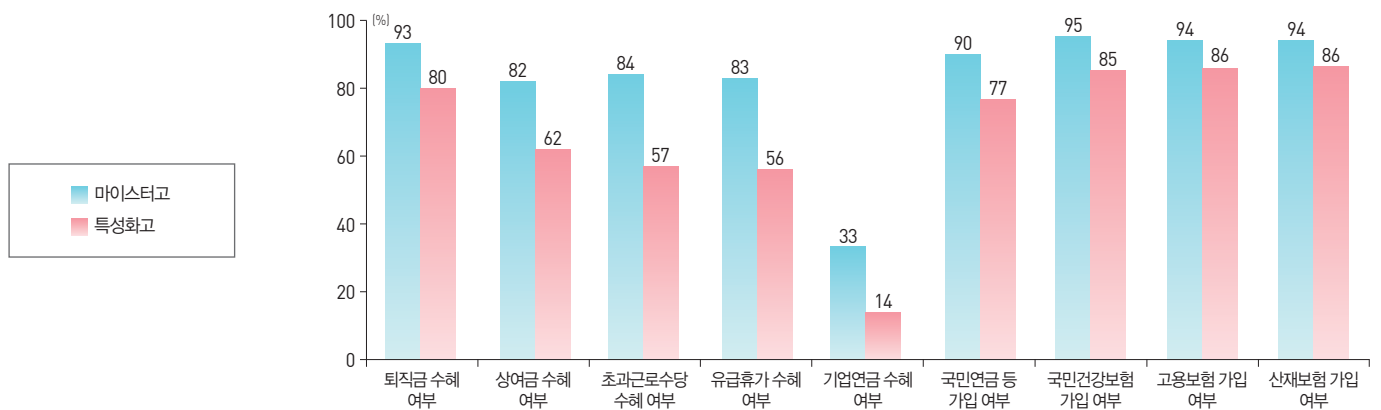
- 현재 취업상태 및 일자리 형태, 근무 형태에서 특성화고보다 마이스터고가 더 좋은 조건을 획득함.
 -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50%는 현재 취업 중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39%보다 더 높음.
 - 일자리 형태에서 취업 중인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92%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특성화고는 79%로 상용직 비율이 더 낮음.
 - 근무 형태에서 마이스터고는 정규직 비율이 74%인 반면 특성화고는 30%에 불과함.

- 또한 월평균 소득은 마이스터고 졸업생 233만 원, 특성화고 졸업생 185만 원으로 약 47.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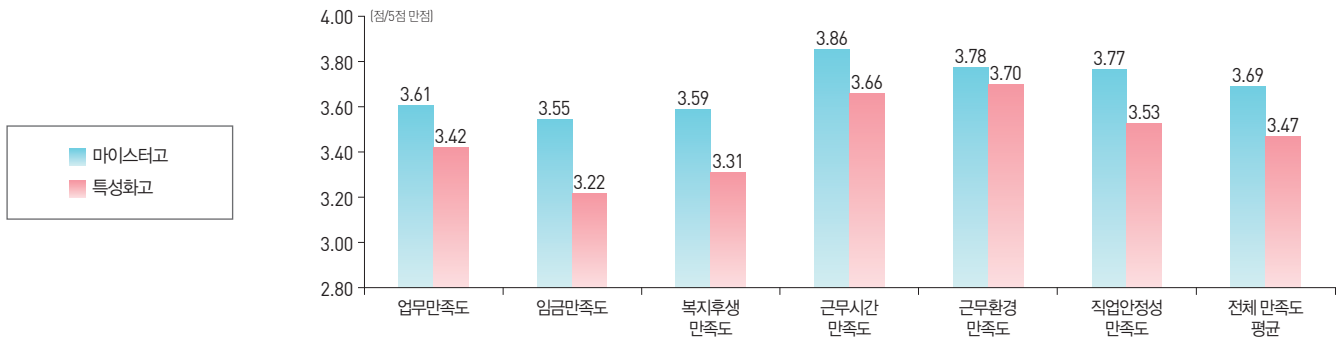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자리 특성 비교

- 퇴직금, 상여금, 초과근로수당, 유급휴가, 기업연금 등 복지후생 관점에서도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.
 - 퇴직금 제도가 있는 직장에 취업한 비율은 마이스터고 93%, 특성화고 80%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, 기업연금 수혜가 마이스터고 33%, 특성화고 14%로 가장 낮게 나타남.
 - 상여금, 초과근로수당, 유급휴가 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마이스터고가 약 80%로 나타난 반면, 특성화고는 60% 정도에 그침.
-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취업한 비율은 마이스터고의 경우 평균 93.3%, 특성화고는 평균 83.5%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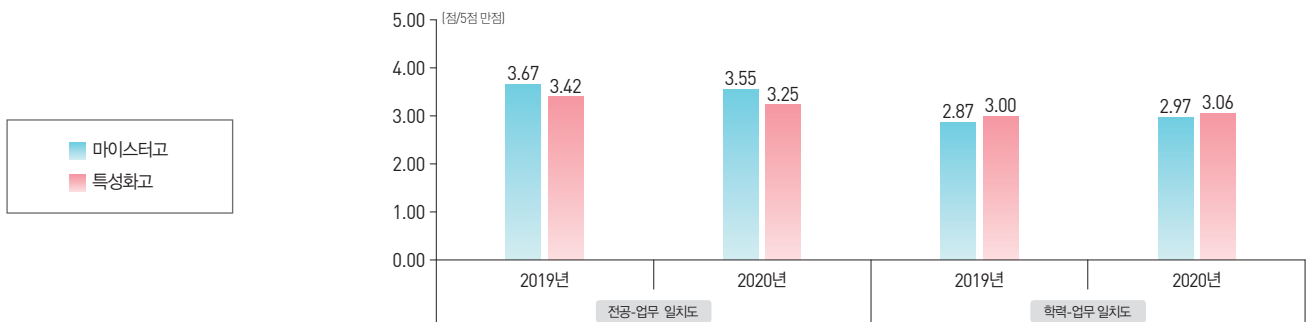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처 복지후생

- | 주관적인 노동시장 이행 성과인 일자리 만족도와 전공·학력-업무 일치도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평균은 마이스터고가 3.69점, 특성화고는 3.47점으로 마이스터고가 0.22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모두 임금만족도가 가장 낮음.
 - 마이스터고는 근무시간 만족도가 가장 높고, 특성화고는 근무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두 졸업생 집단의 차이는 임금만족도에서 0.33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, 근무환경 만족도에서는 0.08점으로 가장 작게 나타남.



[그림 3]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자리 만족도 비교

- 업무-전공 일치도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특성화고 졸업생보다 높음.
 - 업무-전공 일치도는 4차년도(2020년) 기준으로 마이스터고가 3.55점으로 특성화고 보다 3.25점보다 0.3점 높음.
 - 마이스터고의 경우 업무-전공 일치도가 3.67점→3.55점, 특성화고는 3.42점→3.25점으로 두 집단 모두 소폭 하락함.
- 학력-업무 일치도는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학력-업무 일치도는 4차년도(2020년) 기준으로 마이스터고 2.97점, 특성화고 3.06점으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보다 낮게 나타남.
 - 학력-업무 일치도는 3차년도(2019년)보다 4차년도(2020년)에서 두 집단 모두 마이스터고 0.1점, 특성화고 0.6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4]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공 및 학력-업무 일치도

04 시사점

- 마이스터고의 학교 효과는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주요 예측요인으로서 중학교 내신등급을 비롯하여 부모효과 및 학교 소재지를 통제해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임.
 - 마이스터고에서 경험한 직업교육 및 학습활동이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,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중등교육 경험은 취업률, 임금, 복지후생 등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의 객관적인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주관적 노동시장 이행 성과와 관련하여 전공일치도는 지속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직장에서의 직무일치에 대한 만족이 지속됨을 알 수 있음.
-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영향으로서 취업 후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특성화고보다 마이스터고에서 더 높게 나타남.
- 마이스터고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노동시장 이행 실태 및 성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족도와 전공·학력-업무 일치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직업만족 및 직업이동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.

유진영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)

윤종혁 (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)